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과 해설

[정답]

1.④ 2.③ 3.② 4.② 5.④ 6.④ 7.③ 8.④ 9.② 10.③
 11.③ 12.③ 13.⑤ 14.⑤ 15.④ 16.⑤ 17.③ 18.① 19.② 20.②
 21.① 22.⑤ 23.② 24.③ 25.③ 26.④ 27.④ 28.① 29.⑤ 30.①
 31.① 32.④ 33.③ 34.③ 35.⑤ 36.① 37.① 38.④ 39.② 40.②
 41.① 42.③ 43.① 44.① 45.④ 46.③ 47.⑤ 48.④ 49.① 50.⑤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청취자와 함께 하는 ‘삶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희 씨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쓴 글을 들려주신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추억에 잠겨 보시죠.

여 :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성냥갑에서 뼈죽이 나와 있는 성냥개비가 놀자고 한다. 무료함에는 특효약이라 속삭이는 성냥개비. 한번 믿어 보기로 한다. 한 개비를 놓고, 또 한 개비를 놓고, 그 위에 가로질러 또 나란히 놓고…….

처음에는 무심히 쌓아 올리지만, 조금씩 높아지면서 마음이 가기 시작한다. 어디 무너지지 않게 쌓아 볼까, 손이 조심스러워진다. 제법 높이를 갖추니 조바심도 생긴다. 무너지면 안 되는데, 손이 부담스러워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바닥부터 착실하게 쌓을걸.

아차 하는 순간 소리도 진동도 없이 무너진다. 아래쪽에 있던 성냥개비들이 자기들에게 무심했던 시간을 원망하는 듯하다. 그때 미리 마음을 썼으면 덜 미안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닐까?

남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희 씨의 글이었습시다.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이 방송에 소개된 청취자의 사연은 성냥개비 쌓기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글이다. 성냥개비를 제대로 쌓으려면 바닥부터 착실하게 쌓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즉 바닥부터 착실하게 쌓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무너져 후회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라는 교훈을 준다. 따라서 이 방송 내용은 기본을 다지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친구에게 들려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④

2.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제시된 화면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스텔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까요?

(효과음) 먼저, (가) 화면입니다. 파스텔화를 처음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파스텔을 이용해 그림의 완성도를 높였던 17세기 화가, 루벤스를 떠올리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스텔화는 15, 16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두 화가는 습작을 할 때 빨간색 분필을 문질러 다양한 효과를 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빨강 분필을 파스텔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음) (나) 화면을 보세요. 18세기에 그려진 「풍파두르 부인」이란 작품입니다. 부인의 얼굴이 온화하게 보이죠? 피부의 부드러움과 윤기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나 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파스텔을 문지르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림의 좁은 부분에서는 종이를 사용하고, 넓은 부분에서는 솜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외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효과음) (다) 화면입니다. 파스텔은 처음에 주로 스케치 연습 재료로 쓰이다가, 17,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어떤 화가들이 파스텔을 주로 사용했을까요? 19세기 밀레는 파스텔이 다른 재료들에 비해 휴대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빛이나 동작을 포착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드가 역시 독특한 질감에 매료되어 파스텔을 애용했지요.

(효과음) (라) 화면입니다. 파스텔화와 관련된 유의 사항입니다. 파스텔화를 그린 다음에는 반드시 아교풀이나 고무로 만든 정착액을 뿌려야 합니다. 그림의 색을 보호하고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착액을 뿌리면 색깔이 다소 변하고 그림의 표면도 평평해지기 때문에 처음 그릴 때보다 재질감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이젠 파스텔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넓어졌나요?

2. 비판적 사고(발표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파스텔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프리젠테이션하는 내용을 듣고 이를 수정, 보완해 보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파스텔화의 기원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파스텔화를 처음 시작한 화가와 그들이 사용한 재료에 대해 설명하였고, (나) 화면을 보여주면서 파스텔화의 효과와 표현 도구에 대해 설명하였고, (다) 화면을 보여주면서 파스텔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화가를 소개하고 그들이 파스텔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였고, (라) 화면을 보여주면서 파스텔화를 그릴 때와 그린 후의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③번의 경우 발표자가 (다) 화면을

설명할 때 이미 밀레와 드가가 파스텔을 사용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설명 내용 중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가 나오는데 (가) 화면의 '1'에는 화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화가의 이름을 하위 항목으로 넣어주면 (가) 화면이 보완된다. ② (나)를 설명할 때, 종이, 솜 이외에 다른 도구에 대해 의문만 제기하고 설명을 안 하고 있으므로, 다른 도구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 ④ (라)를 설명할 때 그린 후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는 중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⑤ (가)~(라)는 모두 '파스텔화의 이해'와 관련된 하위 항목들인데, 현재의 화면에서는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각 화면 상단에 '파스텔화의 이해'라는 제목을 표시해 주면 보완이 될 수 있다.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감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9볼트의 건전지입니다. 허끝에 대면 찌릿함을 느끼죠? 그 까닭은 건전지의 전류가 허로 흐르면서 허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감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외부에서 전압이 걸려, 근육이나 내장으로 전류가 흘러 몸에 충격을 주는 것이 감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정전기를 느끼는데, 이것도 감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기의 경우는 전압이 높아도 흐르는 전류가 그다지 세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 감전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우리 몸에 흘러야 위험할까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50밀리암페어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압의 크기가 아니라 전류의 세기입니다. 또한 시간도 중요한데요, 센 전류라도 흐르는 시간이 매우 짧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약한 전류라도 흐르는 시간이 길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른 손에 비해 젖은 손에서 전기 저항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세지게 되고, 따라서 감전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 전류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감전됐을 때 부상을 입는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뇌와 심장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강연에서 감전 시 얼마만큼의 전류가 우리 몸에 흘러야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전압이 몇 볼트나 되어야 우리 몸이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②에 제시된 질문은 이 강연만 듣고는 해결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감전될 때 위험한 신체 부위는 뇌와 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정전기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전압이 높아도 흐르는 전류가 그다지 세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마른 손에 비해 젖은 손에서 전기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면 감전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강연의 첫머리에서 9볼트의 건전지를 혀에 대면 짜릿함을 느끼는 이유를 감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5. 다음은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아침부터 조는 걸 보니 새벽에 축구 중계 봤구나?

남학생 : 응, 그래도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은 좋아.

여학생 :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경기가 조금 지루했나 보더라.

남학생 : 전반 초반에 넣은 한 골을 끝까지 지켜서 이겼거든. 그래도 이겼으니 됐지, 뭐.

여학생 : 나도 우리 팀이 이겨서 좋긴 한데, 경기 내용은 맘에 들지 않아. 올해 감독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 팀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 지난번에도 30분이나 남았는데, 경기를 수비 위주로 운영하고, 고의적으로 반칙을 해서 경기 흐름을 끊고. 그런 건 맘에 안 들어.

남학생 : 그래, 그건 좀 아쉽지. 하지만 선수들은 이기려고 축구를 하는 거고, 또 팬들은 이기는 걸 보려고 축구장에 가는 거잖아.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하는 거나 상대 선수가 다치지 않을 만큼만 반칙을 하는 것도 다 이기기 위한 작전의 하나라고 봐.

여학생 :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다 보면 팬들이 지루해하잖아. 그리고 반칙도 작전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경기 흐름을 끊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는 않아. 지난번 감독은 비록 지더라도 화려한 공격 축구를 보여 줬잖아.

남학생 : 맞아. 그때는 한순간도 경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 하지만 경기 내용이 그렇게 박진감이 넘쳐도 결국 이기지 못하면 힘 빠지더라.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느낌이랄까?

여학생 :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냐.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좋아야 팬들을 축구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거지. 팬들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보여 주는 다양한 기술이나 역동적인 움직임은 보려고 축구장에 가는 거잖아. 그게 진정한 팬이기도 하고.

남학생 : 팬들이야 당연히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지.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기는

거야말로 팬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거야. 그리고 진정한 팬이라면 그냥 구경만 하기보다는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지. 왜, 경기장의 팬들을 열두 번째 선수라고도 하잖아?

4. 창의적 사고(광고 문구의 창의적 생성)

정답해설 :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은 스포츠 선수의 경기 참여 태도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여학생은 팬들을 위해 경기 내용이 좋아야 한다며 경기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고, 남학생은 팬들을 위해서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한다며 경기의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팬들을 위한 경기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두 학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문구는 팬을 위한 경기를 강조한 ②번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여학생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며, ⑤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남학생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③, ④는 이 대화의 내용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구들이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이 대화에서 여학생은 ‘우리 팀이 이겼으니 됐다’는 남학생의 주장에 대해 ‘나도 우리 팀이 이겨서 좋긴 하다’며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경기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남학생도 ‘경기 내용이 아쉽다’는 여학생의 주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팬들은 이기는 걸 보려고 축구장에 간다’며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여학생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며 남학생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수비 위주의 경기는 팬들이 지루해 하니까 공격 축구를 해야 한다’며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남학생은 그런 여학생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기지 못하면 힘이 빠진다’며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여학생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남학생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경기 내용이 좋아야 팬들을 축구장으로 불러모을 수 있다’며 자기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남학생은 ‘팬들이 내용 있는 경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여학생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이기는 것이 최고의 팬 서비스’라고 하며 자기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상대방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자기 견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산길을 걷는 여정에서 삶의 자세를 이끌어내는 문제이다. 가령, 그림 에세이의 ‘목마름과 돌부리와 무거운 발걸음’에서는 <보기>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림 에세이의 내용에서 ④의 ‘목표를 잃은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는 끌어내기 어렵다. ④를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에 관한 내용은 에세이에서 찾기 어렵다. 정답 ④

7.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공모에서 요구한 표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휴대 전화의 벨 소리와 연주회의 음악을 대비할 것. (2) 다른 관객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할 것. (3) 휴대 전화를 끄도록 요청할 것. 이 셋을 다 충족하는 표현은 ③이다.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벨 소리보다 ~ 음악이 더 소중합니다’이며, 조건 (2)를 충족하는 표현은 ‘이웃과 공감하며 듣는’이다. 그리고 조건 (3)을 충족하는 표현은 ‘휴대 전화를 재워 두실 때’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②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기계의 울림보다 악기의 울림’이며, 조건 (2)와 (3)을 충족하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④ 조건 (1)을 충족하는 표현은 ‘마음을 ~ 주머니 속이 아니라 무대 위에’이며, 조건 (3)을 충족하는 표현은 ‘전원을 내려 두는 작은 실천’이나, 조건 (2)를 충족하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8. 비판적 사고(자료의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는 강의 방류수에서 항생제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이며, (다)는 폐의약품에 오염된 물이 인체의 건강에 해로우므로 폐의약품을 수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료이다. ④의 경우, (나)와 (다)에서 항생제가 자연에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으며, ‘항생제의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찾는 활동은 의약품이 버려지기 이전의 진료 단계에 관한 것이므로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글 전체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④

9. 추론적 사고(개요 수정 과정의 전략 파악)

정답해설 : (가)와 (나)는 두 학생 각각의 개요이고, (다)는 이 둘을 통합한 개요이다. (다)의 ㉠(데이터베이스화된 도서 정보의 이용 증대)은 (가)의 본론 ‘3. 도서 정보 활용의 증대’를 구체화한 것이고, (나)의 항목은 활용하지 않았다. ㉡ 항목이

(나)에서는 언급되거나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본론’ 중 ‘2. 독자와 저자의 대화 활성화’와 (나)의 ‘현황’ 중, ‘나홀로 독서의 만연’이 서로 배치되므로, ㉠에서 (가)의 내용을 선택하여 기술하고 있다. ③ ㉡(전자 도서 이용자 증가)은 (가)의 ‘결론’의 ‘온라인 독서 방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가)의 ‘본론’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에서는 ‘전자 도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의 ㉢에서 새로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④ (나)의 ‘현황’에서는 대중 읽기 식의 독서나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독서 등의 문제적 현상을 지적하고 있고, (가)에서는 ‘온라인 독서 방법의 개발’을 언급하고 있다. 이 둘을 결합하여 (다)에서는 ㉣(바람직한 온라인 독서 방법의 개발과 교육)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⑤ ‘중소 서점’과 ‘도서관’은 (가)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나)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다)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과 같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는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 서점보다 편리한 이유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위치가 적당하다. 바로 앞 문장에 온라인 서점의 편리성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 바로 뒷문장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도서의 저렴함에 관한 내용이므로 위치를 맞바꾸면 내용 연결이 어색하게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그래프에 제시된 기간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의 바로 앞에서는 2008년이 언급되었으므로, ㉠(판매한 책)가 어느 기간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분명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 ② 그래프 상 판매 감소가 있었던 해도 있으므로, ‘매출액은 매해 증가해 왔으며’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서점’으로 써 오다가 ‘인터넷 서점’을 바꾸어 쓰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④ 전자 도서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의 정보는 온라인 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 증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11. 어휘·어법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

정답해설 : ‘만화가 재미있다’의 ‘재미’는 ‘흥미’를 뜻하므로 ‘재미1’에 해당한다. <보기>에 제시된 대로, ‘재미1’과 ‘맛2’가 유의 관계인 것은 맞으나, ‘재미1’과 ‘맛1’은 다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다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맛1’과 ‘맛2’의 다의 관계에서처럼 형태가 같아야 하나, ‘재미1’과 ‘맛1’은 형태가 다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행의 ‘맛’은 <보기>의 ‘맛2’에 해당하며, ‘맛2’는 ‘맛1’과 다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② 설탕의 ‘단맛’과 ‘쓴맛’은 <보기>의 ‘단맛’과 ‘쓴맛’에 해당하며, 이들은 <보기>에서처럼 ‘맛’의 하의어에 해당한다. ④ 상인의 ‘이익’을 ‘재미2’

와 유의 관계로 본다면, <보기>의 ‘이익’도 ‘재미2’와 유의 관계로 볼 수 있다. ⑤ 소설의 ‘흥미’와 ‘이익’은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기>에 역시 그 의미 관계를 표시할 수 없다.

12. 어휘·어법 (감탄사의 용법 파악)

정답해설 : ㉠의 ‘글썸’이 ㉡의 ‘글썸요’로 ‘-요’가 첨가된 것은 발화의 청자가 아들에서 아버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하여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뉘’는 다음에 이어지는 ‘명인’에 대해서 이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여러 말 할 것 없’이 수용하거나 긍정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② ㉡은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바라는 발화이다. ④ ㉢의 ‘음’ 앞뒤에 반점(.)이 있다는 것은 독립어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의 ‘아니요’는 부정하는 의미이고, ‘아니 ~ 될 일이냐’의 ‘아니’는 놀라움의 의미이므로 둘은 의미가 같지 않다.

[13-16] 현대시

(가) 정지용, ‘발열(發熱)’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열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자식의 고통스런 상황이 잦은 쉽표의 사용과 도치의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자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아아’의 반복적인 표현 속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으며, 아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지막 모습이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주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

(나) 김영랑, ‘거문고’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소리를 마음껏 내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선 ‘거문고(기린)’를 통해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화자의 답답함과 비애 어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억압의 상황에서 자유를 구가하지 못하는 작가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시대를 잘못 만나 제 곡조를 잃어버린 ‘기린(거문고)’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망국의 설움 속에서도 마음껏 울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권 회복에 대한 화자의 염원을 읽어낼 수 있다.

[주제] 암울한 시대 상황의 비극적 인식

(다) 최승호, ‘대설주의보’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온 산과 골짜기를 덮는 눈을 통해 1980년대 군부의 계엄령 상황이라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눈보라의 대설주의보를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으로 표현한 것에서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 이러한 눈보라는 길을 끊어 놓을 듯하고, 연약한 굴뚝새를 숨게 만들며, 그 위세는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릴 듯하다.

[주제] 자유를 억압하는 암울한 시대 상황 비판

13.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화자의 어린 아들이 열에 앓고 있는 모습이, (나)에는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기린(거문고)’가 울지 못하는 상황이, (다)에는 눈보라 속에서 ‘굴뚝새’가 처한 상황이 부각되어 시적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나는 중얼거리다’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느껴지고 있지만, 시행이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에서도 시행의 반복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명사로 끝난 시행은 11행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복이 시적 여운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다)에서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며 화자가 인식하는 암담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에는 거문고가 기린으로 의인화되었다. 또한 (다)에는 눈보라가 힘찬 군단으로 표현되어 마치 군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의인화의 표현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에서의 표현은 계엄령 하의 군대를 연상시키기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온다. ④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은 (가)이다. (가)에서 2행은 ‘포도순이 소리 없이 기어 나가는 밤’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소리 없이’를 행의 맨 뒤로 보냈으며, 4행은 ‘등에 훈훈히 서리나니’로 표현되어야 자연스러운데 ‘훈훈히’를 행의 뒤로 보냈고, 6행에서는 ‘박나비처럼 드내쉴노니’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도치하여 표현했다. 또한 8행과 9행 역시 도치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어순의 도치는 작품 전반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14. 비판적 사고(영상시 제작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의 아이는 열병을 앓고 있다. 화자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안타깝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이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망연한 표정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C]의 장면을 B, S처럼 영상화하는 것이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 장면에서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처마 밑 어느 집

에 고정되고 있다. 시간은 밤이요, 땅에 스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린다는 표현에서 더운 계절임을 알 수 있다. ② 아이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기에 ‘박나비, 주사’의 표현에서 열병의 붉은 색이 두드러지고, 아이의 가쁜 호흡을 음향으로 들려주면 아이의 고통스런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아이의 앓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아아’의 감탄사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시대적 상황 하에 탄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두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일정한 증거로서의 틀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 ‘노인’은 국권이 자유로울 때 ‘기린’을 마음껏 울게 했던 존재로 추억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기린’은 이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보다 계엄령으로 표현된 눈보라 속에서 고립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나)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에 쓰였다고 했다. (다) 역시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② (나)에서 화자는 마음껏 울지 못하는 시대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지금은 ‘이리떼, 잔나비떼’만 몰려다니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읽어낼 수 없다. (다)는 눈보라의 상황 속에서 파닥이며 힘겹게 날아가는 ‘굴뚝새’에게서 암울한 시대 상황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읽어낼 수 있으나 ‘굴뚝새’는 ‘뒷간’에 몸을 감추고 만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도 고난의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읽어낼 수 없다. ‘대설주의보, 군단, 계엄령’으로 표현된 암울한 상황만이 강조되고 있다.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기린’이지만, 동시에 화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다)에서 ‘내리는’ 역시 그 대상은 ‘눈’이면서 동시에 ‘계엄령’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내 기린’을 제약하는 것이며, (다)에서 ‘술개’는 ‘굴뚝새’를 ‘뒷간’에 숨게 만든다.

16. 추론적 사고(시적 상황에 대한 파악)

정답해설 : [D]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문 아주 닫고 벽에 기댄 채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기린’의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닫힌 공간은 바로 화자 스스로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는 ‘산짐승’들로 하여금 길 잃고 굶주리게 하며,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려는 눈보라가 내려치는 상황이다. ‘굴뚝새’마저 몸

을 감추게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립의 공간인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D]는 화자가 선택한 고립된 공간이며, 동시에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E]의 공간은 존재들을 억압하는 외부적 공간이다. ② [D]와 [E]의 상황 모두 화자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③ [D]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내’는 ‘기린’이라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E]에서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관찰과 묘사만 드러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대상인 ‘기린’과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E]에서 화자는 대상인 ‘눈보라’와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17-19] 언어, ‘언어 지도를 활용한 방언 연구’

지문해설 : 이 글은 지리학의 방법인 ‘언어 지도’를 활용하여 방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으로,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언어 현상을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지리학의 한 방법인 언어 지도를 활용하면 현재 언어 상태의 생생한 모습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어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도에 담긴 언어형태 이전 시기의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제] 언어 지도를 활용한 방언 연구의 방법 및 의의

17. 추론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추리)

정답해설 : 방언 연구에 언어 지도를 활용하면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시적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어 지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기에 성별이나 세대 차의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방언형에 대한 내용은 유추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③ 방언형의 지역적인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어떤 방언형이 두루 쓰이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어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언어 지도는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에, 순수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사례 찾기)

정답해설 : ‘박쥐’를 ‘빨쥐, 뿔쥐’로, ‘부추’를 ‘솔, 줄, 정구지’로, ‘진달래’를 ‘참꽃, 연달래’로 부르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의 예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의미하는 ‘아재’가 지역에 따라 ‘고모’나 ‘이

모'를 의미한다는 b의 사례는 ㉠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분화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19.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표준어 '노을'에 대한 가상의 언어 지도이다. <지도 A>는 각 지점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지도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호로 표시한 진열 지도이고, <지도 B>는 앞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등어선으로 표시한 해석 지도이다. 진열 지도인 <지도 A>에서는 언어학적으로 비슷한 모양의 부호를 사용하는데, '노을'과 '노으리'가 비슷한 모양인 '□'과 '■'의 부호를 사용한 것은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 ◇, ☆' 등은 '노을'의 방언형 중에서 형태가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한 부호일 뿐, 단어의 의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④ <지도 B>를 보면 방언형이 같은 여러 지점을 묶어서 굵게 등어선으로 표시하였다. ⑤ <지도 B>를 보면 <지도 A>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방언형이 무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편집자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20-22] 기술, '청력 검사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귀의 소리' 측정을 통한 청력 검사 기술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력 검사 방법은 청력 검사자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귀의 소리'를 이용한 청력 검사 방법은 외부 자극 소리에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청력 검사자의 반응 없이도 청력을 측정할 수 있다. '귀의 소리'를 이용한 청력 측정 방법의 기술적 원리를 귀의 구조와 연결해 핵심 정보로 소개하면서 그 한계, 이용 사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주제] 귀의 소리 측정을 통한 청력 검사 기술의 원리

20. 추론적 사고(근거의 파악)

정답해설 : ㉠은 '귀의 소리'가 청세포가 외부의 자극 소리에 반응하여 내는 자체적 소리임을 말하고 있다. 문제의 의도는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이 글의 제시된 내용을 통해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다. 글쓴이는 ㉠과 말한 이유를 ㉠의 바로 뒤에서 '달팽이관 메아리'와 달리 외부자극에 대한 '귀의 소리가'가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다는 점과,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 자극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말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귀의 능동적 소리'인지, '달팽이관의 메아리'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다. ④ 3문단에서 ‘귀의 소리’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의 근거로 알맞지 않다. ⑤ 3문단에 제시된 내용으로 ‘귀의 소리’의 특징이다. ‘달팽이관 메아리’ 역시도 개인별 차이가 있고, 개인별로 패턴을 가질 것이므로 적절한 근거로 볼 수 없다.

21.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지문에 제시된 ‘귀의 소리’ 측정 방법과 원리를 시각 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귀의 소리’가 ‘외부 자극 → 청세포 전달 → 청세포 수축, 이완 → 소리 발생’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후 귀의 여러 기관 거쳐 외부에서 감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리 자극인 f_1 , f_2 가 마이크로폰에서 먼저 감지된 다음 ‘귀의 소리’가 마이크로폰에서 포착된다. 이는 모니터의 오른쪽에 f_2 , f_1 소리 후, f (귀의 소리)가 포착되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귀의 소리가 외이도를 거쳐야 하므로 옳은 판단이다. ③ 자극 소리로 인해 귀에서 울림이 있으므로 메아리 소리도 감지될 수 있고 반응소리인 ‘귀의 소리’도 포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판단이다. ④ 2문단의 최대 ‘귀의 소리’ 관련 공식에 대입하면 옳은 판단이다. ⑤ 귀의 소리의 개념을 이해한 것으로 옳은 판단이다.

22. 추론적 사고(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귀의 소리’가 청세포의 손상으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귀의 소리’가 사라진 사람에게는 ‘귀의 소리’ 측정을 통한 청력 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세포가 파괴된 환자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귀의 소리’가 청신경 자극이라는 점, 귀는 자신의 반응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보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② 일부러 소리에 반응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귀의 소리’를 확인하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③ ‘귀의 소리’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별로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는 점으로 보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④ ‘귀의 소리’는 청세포의 능동적 반응 소리이므로 그 여부에 따라 난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3-26] 현대소설 - 신경숙, ‘외딴 방’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작가의 열여섯에서 스무 살까지의 시절을 엿보게 한다. 즉,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학의 꿈을 키워 나가던 작가의 어린 시절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내성의 문학’이라 부를 수 있으며, 제목 그대로 외딴 방에서 외롭게 죽어간 한 여자의 가여운 녀에 대한 진혼가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잊고 싶었던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그 시절,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 쓰라린 현장을 다시금 복원해 낸다. 그 복원의 대상은 주인공이 십대 후반, 낮에는 전기제품업체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던 시절이다. 이 작품은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지난 시절과 작품을 쓰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 주기적으로 교차되면서 일반 소설이 주지 못하는 감동을 전해 준다. 이처럼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내적 필연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작품과 일정한 거리를 취한 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에 개입해서 그 의미를 반추하고 그것의 필연성과 정당성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런 글쓰기는 이 작품에 강한 밀도와 구체성을 부여해 주는 성과를 거두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유년기의 기억과 글쓰기를 통한 자아의 정체성 확인, 글쓰기의 의미에 대한 탐구

23. 추론적 사고(심리적 태도의 추리)

정답해설 : 이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컨베이어’, ‘주산’, ‘대차대조표’, ‘공장 굴뚝의 연기’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한다. 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쓰게 된 ‘반성문’에 대해서는 ‘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쓰다 보니 노트의 삼분의 일은 되게 길게 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주인공은 ‘반성문’에 대해서 다른 것과는 다른 심리적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24. 추론적 사고(작가의 서술 전략에 대한 추론)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작가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교차시키면서 성장 과정의 자기 고백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글쓰기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간결한 문장을 주로 구사하고 있다. 특히 [B]에서는 간결한 문장을 통해 소설 쓰기의 계기가 된 최홍이 선생님과 만남, 즉 열일곱 시절의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 노트의 ㉔가 [B]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고 있지만 이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그것 때문에 인과 관계가 명료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B]에서 ‘이후 나’와 ‘열일곱의 나’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⑤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사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5. 비판적 사고(작품 내용에 대한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C]는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노트에 옮겨 쓰는 장면이다. 이는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내용을 통해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은 [C]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④ [C]의 뒷부분에서 ‘나’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자신의 삶과 유사한 소설 속 인물들의 삶에 공감하며 위안을 얻고 있다. 이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나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와 같은 독특한 문장부호를 사용한 서술을 통해 드러난다. ⑤ ‘열일곱의 나’가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적는 데서, ‘나’가 이 소설에 대해 보이는 애착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26. 추론적 사고(다른 작품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D]는 작가가 작품의 창작 동기(‘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띄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를 직접 드러낸 부분이다. <보기>에 제시된 『양주별산대놀이』에서 광대들이 공연하는 동기가 직접 제시된 부분은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보자’고 말하는 ④이다. **정답 ④**

[27-30] 인문, ‘조선시대 군대의 전술 변화’

지문해설 : 조총의 도입으로 나타난 군대의 전술과 무기체계의 변화 및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총의 도입으로 나타난 군대의 전술과 무기체계의 변화로는 군의 규모 증대,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의 변화, 조총의 비중 증가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변화로는 백성에 대한 통제의 강화, 대규모 군사력의 운용으로 인한 국가 단위의 재정 규모 증대, 재정권의 중앙 집중화, 조세제도의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총의 도입으로 나타난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주제] 조총의 보급으로 인한 전술의 변화 및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양상

2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조선군은 조총이 보급된 후 기병 중심에서 조총병, 살수, 사수 등의 삼수병 체제로 이루어진 보병 중심으로 군대 체제가 급속히 전환되었다.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조총의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활의 비중이 줄고 조총의 비중이 높아졌다. 따라서 조총이 보급된 후에도 활의 사용이 여전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조총을 도입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조선은 군대 편성 및 전술에 변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② 중국은 조총을 보급하면서 절강병법을 고안하였으며, 조선은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의 전술로 바꾸었다. ③ 조총과 함께 다양한 근접전 병기를 갖춘 보병을 편성했다. 반면 조선은 조총병, 살수, 사수 등의 삼수병 체제로 보병을 편성했다. ⑤ 조총은 특별한 무예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에 관한 연마가 되어 있지 않은 하위 계층의 사람들도 군대에 편성될 수 있었다.

28. 비판적 사고(정보와 참고 자료의 연관성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여진족이나 왜구를 상대로 싸웠을 때 다양한 화약 병기를 사용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화포의 효과를 말하고 있는 ㄱ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나)는 중국의 군대가 조총과 함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근접전용 무기를 갖춘 병사들이 각 특성에 맞게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ㄴ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 작살 등으로 무기를 만들고 각 병사의 특성에 따라 담당하는 무기가 달랐다는 사실을 제시해 (나)의 참고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다)는 조선군의 전술이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기병과 보병을 비교해 보병이 우리나라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ㄴ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은 지방의 군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을 (가)~(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29. 추론적 사고(추론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라)에서는 새로운 무기 수용과 전술의 변화가 군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변화까지 가져왔음을 말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하나로 재정권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재정의 상당 부분이 조정으로 귀속된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을의 재정 형편이 그 전보다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을 것이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천민 계층까지 군대에 충원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사노까지 군대에 충원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백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남성은 이름과 군역 등이 새겨진 호패를 차야 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④ 가호(家戶)를 단위로 부과하던 공물을 농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무명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 논밭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부담을 줄였다는 데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30. 어휘·어법 (음운변동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도치’ 등의 다섯 가지 음운변동을 제시한 후, 그 사실을 ‘못한’에 적용해 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못한’이 표준발음대로 발음되는 과정을 분석하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못’이 /몬/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몬/이 뒤의 /한/과 함께 발음되는 과정에서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어 ‘못한’이 /모탄/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31-35] 고전수필, 고전시가 복합

(가) 홍인우, ‘관동록’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금강산을 다녀온 후 그 감상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기행문답게 여정과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 특히 금강산의 영랑재에서 바라본 다양한 형상의 봉우리와 바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비유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비로봉에 오르는 과정에서 바라본 풍경들, 그리고 비로봉에서 바라본 풍경 및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금강산 봉우리들의 풍경에 대한 예찬

(나) 정철, ‘관동별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의 대표적인 가사 작품으로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며 금강산과 동해 일대의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쓴 기행 가사이다.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나 있으며,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작가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제시된 지문에는 금강산 비로봉에 오르는 과정에서 바라본 다양한 봉우리와 풍경들이 다양한 비유적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주제]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예찬

(다) 안민영, ‘평시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금강산의 겨울 풍경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담아낸 시조이다.

화자는 금강 일만 이천 봉을 ‘눈’과 ‘옥’으로 표현했기에 겨울의 풍경임을 알 수 있고, 혈성루에서 바라본 풍경은 글로도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했다.

[주제] 금강산의 겨울 풍경에 대한 예찬

31.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감각적인 언어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등의 심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을 말한다. (가)에서는 특히 천봉만학의 형상을 다양한 비유로 시각화시켰으며, ‘해송과 측백나무’ 또한 ‘질고 열은 푸른 빛’으로 표현하는 등 시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나) 역시 금강산에서 바라본 풍경들을 표현하다 보니 시각적 표현이 곳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금강산이라는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는 모두 금강산 비로봉에 이르는 여행 도중의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의 질문을 통해 금강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에서는 작가가 의문을 드러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다. ④ (나)에서는 ‘또 있는가’, ‘귀 뉘신고’, ‘고이힐가’ 등 단정적이기보다 의문형의 어조가 자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다)에서는 ‘옥이로다’, ‘되었어라’, ‘금강인가 하노라’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나)에는 금강산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조화옹’의 솜씨가 드러난 것으로 금강산을 바라보기도 하며, 인간 세상에서의 임금과 신하 사이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다)는 짧은 시조의 형식이다 보니 금강산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32. 추론적 사고(표현 대상의 파악)

정답해설 : ㉠의 비유는 작가가 해송과 측백나무가 펼쳐진 위로 걸어가며 느낀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에 비유적 표현의 대상은 해송과 측백나무 위의 길이다.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금강산의 ‘천봉만학’의 다양한 형상들이 펼쳐진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④**

33. 추론적 사고(내용의 추리 상상)

정답해설 : 작가는 ‘진혈대’에 올라 그 아래 펼쳐진 봉우리들을 구경하며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에 마치 ‘여산’의 진면목을 본 듯하다고 한 것이다. 즉, ‘여산’은 화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 아니라 금강산의 풍경을 빗대어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영랑재에서 바라본 기괴한 형상들이 다양한 비유로 표현된 것을 보면 작가에게 이 풍경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② 해송과 측백나무가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쪽으로 쏠렸다고 했다. ④ 작가는 개심대에서 중향성을 바라보며 기운을 느끼고 그 기운으로 인걸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⑤ 혈성루에 올라가니 천상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천상인’을 ‘신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비판적 사고(서술자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A]와 [B] 모두에서 작가가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지 않았다. [A]에서 작가는 오히려 자연 속에서 새로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작가가 승려 성정에게 질문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비로봉을 바라보며 작가는 동산, 태산에 올라 노국과 천하를 좁다고 했던 공자의 호연지기를 떠올리고 있다. ④ [A]에서 비로봉에 오른 작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했으며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솟구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B]에서 작가는 공자의 높은 덕을 흠모하며 비로봉에 오르지 않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⑤ [A]의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란 작가의 질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B]에서 작가는 자신은 노국 좁은 줄도 모르는데 천하를 좁다고 한 공자의 호연지기에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35. 추론적 사고(운율의 원리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설명한 전봇대의 간격은 운율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다. a)에서의 ‘원래의 간격’이란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리듬감을 말한다. 이를 시조 읽기에 적용한다면 ‘일정한 간격’이란 ①과 같이 한 호흡에 4글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말하며,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는 허전한 느낌이 드는 상황은 바로 3글자로 표현된 ②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서 급한 느낌이 드는 상황은 ④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리다가 다시 원래의 간격인 4글자를 회복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바로 ⑤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36-37] 과학,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통한 생물 다양성의 이해’

지문해설 :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어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토대로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실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모델로 삼아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세 집단 중 두 집단을 각각 섞어 배양하면 가위바위보 게임

처럼 집단 간 증식 경쟁에 따른 승패가 확실하지만, 세 집단을 서로 인접시켜 배양하면 여러 요인의 상호 관계가 영향을 주고 받아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의 관계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삼자 간의 공존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생태계에 절대 강자가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삼자 간의 병존 가능성은 생물 다양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 가위바위보의 관계와 같은 생물들 간의 공존 관계

36. 추론적 사고(새로운 정보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그것을 새로운 정보의 생성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집단 S’는 ‘집단 R’보다 증식 속도가 빠르지만 콜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된다. 이는 ‘집단 S’가 증식 속도 면에서 ‘집단 R’보다 강자이며, 콜리신과 관련해서는 ‘집단 C’보다 약자임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집단 S’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화살표가 모두 시계 방향을 가리켜야 하며, ㉠, ㉡에 각각 ‘집단 C’와 ‘집단 R’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집단 S’는 콜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되는 이유로 ‘집단 C’보다 약자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콜리신 생산’이다. 그리고 ㉣에 적합한 내용은 ‘저항성 및 증식속도’이며, ㉤에 적합한 내용은 ‘증식 속도’이다. **정답 ①**

37. 비판적 사고(정보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셋째 문단에서는 생쥐들의 장내에 세 대장균 집단을 투여한 후 각 집단 간의 증식 경쟁을 살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한 시점에서는 생쥐 개체별로 어느 한 집단이 우세한 경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계속 바뀐다고 하고 있다. 이는 대장균 세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배양했을 때, 어느 한 집단이 증식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독소를 생산하는 종과 그에 관한 저항성을 지닌 집단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독소를 생산하는 종만 있을 때보다 생물 다양성이 증가되었음을 나타낸다. ③ 생쥐 실험 내용이 다른 포유동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면 토끼로 실험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④ 생쥐들의 장내에 세 대장균 집단을 투여했을 때 한 시점에서 생쥐 개체별로 어느 한 집단이 우세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실험에서 생쥐를 수를 늘렸을 때 각 대장균 집단의 우세가 균등하게 분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⑤ 대장균 세 집단의 관계는 가위바위보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우세한 집단이 바뀌는 순서를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다.

[38-42] 사회, '반론권'

지문해설 : 이 글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권'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반론권은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론 중재 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반론권 청구가 가능하며 사회적 강자인 언론에 대해 일반인이 동등한 권리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나 있으나 법적으로 이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권'의 의미와 가치, 우리 사회에서 반론권의 적용에 따른 논란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주제] '반론권'의 개념과 그 의의

38. 추론적 사고(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반론권'의 개념을 1문단에서 소개한 뒤, 2문단에서 반론권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시각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3문단에서 '반론권'이 가진 의의를 설명한 뒤, 반론권 적용의 효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정답 ④**

39. 사실적 사고(글의 세부적 내용 이해)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우리가 프랑스식 모델의 반론권이 아닌 독일 모델의 반론권을 도입했음은 알 수 있으나 반론권을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③ 1문단 반론권은 정정보도, 추후보도와는 다르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④ 2, 3문단에서 반론권과 관련된 설명에서 '개인', '일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단체, 조직, 법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40.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 제시)

정답해설 : 반론권은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추후보도에 해당한다. ③, ④, ⑤ 정정보도에 해당한다.

41.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 ‘무기대등원칙’은 강자에 대해 약자가 방어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은 약자인 피의자가 강자인 국가, 권력, 법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근본적 의미가 ‘무기대등원칙’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보호’, ‘배려’의 개념은 드러나나, ‘방어’의 개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42. 어휘·어법(유의어의 파악)

정답해설 : ㉡은 ‘마음에 들다, 차다’의 의미이다. ㉡ ‘상당한’은 ‘어느 정도에 어울리는, 알맞은, 걸맞은’의 개념으로 ㉡의 유의어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 ② ‘모자람 없이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 ④ ‘마음에 흡족하다,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 ⑤ ‘마음에 들어 흡족하다’라는 의미

[43-46]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수궁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구토지설과 같은 설화가 판소리로 정착된 것으로서, 평민 예술 특유의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이 돋보인다. 용왕과 토끼의 대립, 독수리와 토끼의 대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속이는 지배 계층과 이를 피로 모면하는 피지배 계층의 대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 위기를 극복하는 토끼의 지혜

4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수궁’에서 자신의 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처지에 있던 토끼가 위기를 모면하고 육지로 오는데, ‘육지’에서 다시 독수리를 만나 잡아먹힐 위기에 봉착한다. 하지만 토끼는 피를 내어 위기를 다시 모면한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공간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작품은 우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특정 시대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지 않다. ③ 갈등이 고조된다기보다는 갈등 또는 위기가 해소되는 상황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고사의 ‘오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⑤ 주인공 토끼의 행동을 ‘잘못’의 반복으로 보기 어렵다.

44.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권력자인 용왕의 권위가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불행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B]는 토끼가 독수리를 조롱하고 단념시키는 상황이므로,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 토끼가 자신의 배를 가르라고 할 정도로 호언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B]에서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라고 말하는 것은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④ [A]에서 ‘배를 따’, ‘똥’, [B]에서 ‘해골이 터질 테니’ 등의 비속어가 쓰이고 있다. ⑤ [A]는 표면상 토끼가 별주부에게 하는 말이나 용왕을 포함한 다른 청중들까지 설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이다. 반면 [B]는 토끼가 바위 구멍 밖의 독수리에게 하는 말이다.

45. 어휘·어법(한자성어를 활용한 반응)

정답해설 : ㉠ ‘토공을 모시고’는 용왕이 별주부에게 토끼를 데리고 물으로 가라고 명을 내리는 상황으로, ‘토공’과 ‘모시고’와 같이 토끼를 우대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이는 토끼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스르지 않으려는 용왕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천려일실(千慮一失)은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여러 생각 가운데에 잘못되는 것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용왕의 태도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허장성세(虛張聲勢)’는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떠벌림’을 뜻하며, 조심스러운 용왕의 태도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② ‘수주대토(守株待兎)’는 송(宋)나라의 한 농부가 나무그루에 토끼가 부딪쳐서 죽는 것을 보고, 농사를 팽개치고 나무그루에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구습을 고수하여 변통할 줄 모름’을 이른다. 용왕이 토끼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맞으나, 이 상황에 ‘수주대토’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라고 말하는 토끼에게서 용왕이 ‘안하무인’의 태도를 인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하무인(眼下無人)’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⑤ 용왕은 토끼가 간을 가지고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겨우 잡아 온 토끼를 놓아주어야 하다니’의 반응을 보이기는 어렵다. ‘자가당착(自家撞着)’은 ‘같은 사람의 문장·언행이 앞뒤가 어긋나 모순됨’을 뜻한다.

46.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의사줍치’는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먹느냐, 토끼가 독수리로부터 벗어나느냐의 상황에서 토끼가 생각해 낸 꾀에 해당한다. ‘의사줍치’로 인해 토끼는 독수

리를 속이고 독수리는 토끼를 놓치게 되었으므로, ‘의사춤치’가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독수리는 ‘의사춤치’란 말을 듣고, 관심을 토끼에게서 (의사춤치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썩은 도야지 창자,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 등으로 돌리게 된다. ② 토끼는 ‘의사춤치’를 수궁의 용왕에게서 획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④ 독수리를 현혹시킨 ‘의사춤치’는 토끼의 피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대상이다. ⑤ ‘의사춤치’는 독수리의 더 많은 먹이를 바라는 욕망과 토끼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얽히는 대상이다.

[47-50] 예술, ‘영화의 추상적 의미 표현’

지문해설 : 이 글은 한자의 구성 원리를 응용하여 이루어진 영화의 시각적 의미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자의 육서(六書) 중 회의 문자는 두 개의 문자가 결합하여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에이젠슈테인은 이에 주목하고 있다. 에이젠슈테인은 영화의 개별 장면(shot)들은 각각 상형 문자로, 개별 장면이 결합된 조합은 회의 문자로 보고 있다. 즉, 영화의 개별 장면들은 각각 사물이나 사실을 나타내지만, 이들이 특정하게 결합되면 그 조합은 새로운 의미의 ‘개념’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장면들이 시간적 병치를 통해 이루어 낸 추상적 의미는 관객의 몫이 된다.

[주제] 영화의 추상적 의미 표현에 응용된 한자의 구성 원리

47. 비판적 사고(글쓴이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영화는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약한 장르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즉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의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글쓴이는 이를 위해, 한자의 구성 원리를 끌어들이어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 의미 표현을 한 에이젠슈테인의 영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영화의 개별 장면은 상형 문자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③ 영화의 개별 장면들이 특정하게 결합되어야 영화의 정신적인 의미로 환원될 수 있다. ④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영화 본연의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48. 추론적 사고(글쓰기 전략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시각 예술로서 영화의 특질을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에이젠슈테인이 주목했던 한자의 구성 원리를 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들

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다. 구체적 작품은 50번 문제에 소개된 ‘2001년 세페이스 오디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49.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의 의미를 파악한 후,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례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는 문제이다. ㉠은 각각의 의미를 지닌 두 문자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회의 문자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답지 역시,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례여야 하는데, ‘얼굴을 익히다’는 ‘여러 번 보아서 눈에 익거나 친숙하다’는 의미로 ‘익히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곡식 따위를 찢거나 뺏는다는 의미의 ‘방아’가 ‘입’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사례이다. ③ 모순(矛盾)은 ‘창’과 ‘방패’라는 의미의 단어가 만나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사례이다. ④ ‘배꼽’과 ‘쥐다’가 결합하여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⑤ ‘개밥’과 ‘도토리’가 만나서 형성된, ‘개밥의 도토리’는 ‘따돌림을 받아서 여럿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관용어로 쓰인다.

50.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뼈’와 ‘우주선’은 각각 영화의 개별 장면으로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된다. 하지만 이 둘이 결합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뼈와 우주선’을 연결하여 개념을 이끌어낸 것은 ⑤이다. 이 영화는 <보기>의 장면을 통해 ‘뼈’와 ‘우주선’을 연결하여 ‘도구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원시의 황야’와 ‘우주 공간’을 연결시켰다. ②, ③ ‘뼈’와 ‘우주선’을 연결시켜 개념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다. ④ ‘우주선’만 가지고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